

『 파주 헤이리 예술 마을: 누구를 위한 공간인가? 』

지리교육과 2학년 박기역

☞ 답사포인트

- 헤이리 예술 마을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자.
- 헤이리 예술 마을의 입지배경에 대하여 알아보자.
- 헤이리 예술 마을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1. 헤이리 예술 마을



〈 헤이리 예술 마을 입구 〉

출처: 파주 시청

경기 파주시 탄현면 범흥리 통일동산에 위치한 헤이리 예술 마을은 다양한 문화장르가 한 공간에서 소통하는 문화 예술 마을이다. 1997년 헤이리 예술 마을 건설위원회를 시작으로 1998년 문화예술계 인사 370여명이 예술인마을 건립을 위해 15만평의 땅을 구입함으로써 건설되었다. 2002년 착공된 이후 2009년 초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8년 현재 갤러리와 작가 스튜디오, 예술인의 주거 공간 등 88여개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 이곳은 회원들이 조성계획과 디자인을 스스로 계획하고, 그들이 20여명의 건축가를 스스로 선정하여 담이 없고, 건물 높이는 3층을 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디자인코드를 설정한 건축계획을 통해 만들어졌다. 헤이리 예술 마을은 예술인들의 이상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며, 자연 속 열린 공간에서 자유롭게 안정적인 창작 및 교류활동을 추진하는 새롭고 실험적인 문화예술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

2. 헤이리 예술 마을의 입지

경기 서북부에 새롭게 자리잡아가고 있는 문화체험지역에는 헤이리 예술 마을, 파주 영어마을, 파주 출판단지가 있다. 이들은 예술, 교육영어, 출판과 문화가 결합되어 있는 복합문화지역으로서 현재 새로운 문화지대로 부상하고 있다.

이들 중 예술문화를 대표하는 헤이리 예술 마을은 1994년 ‘도서출판한길사’의 한길사사장이 영국의 헌책방 마을 ‘Hay-on-Wye’를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중세모습 그대로를 간직한 시골 마을인 ‘Hay-on-Wye’는 전 세계적인 문학페스티벌이 열리고, 고서를 중심으로 한 문화교류가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모습에 자극을 받아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예술문화 마을을 만들자고 한 것이 지금의 헤이리 예술 마을이 만들어 진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와 함께 경기 서북부 복합 문화지역(헤이리 예술 마을, 파주 출판도시, 파주 영어마을)의 지정과 자유로 관광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정부의 정책과 순수 예술인들이 자유로운 예술 활동을 위해 자발적으로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하면서 현재의 헤이리 예술 마을이 만들어 졌다.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파주 출판도시나 경기도 재단법인의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는 파주 영어마을과는 달리 헤이리 예술 마을은 예술인들이 ‘헤이리위원회’라는 민간조합을 결성하여 그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민간조합인 만큼 입주해 있는 350여명의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관리, 운영되고 있으며 2002년 착공당시부터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코드를 만들어 몇 가지 규제를 두어 건물을 세우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헤이리 예술 마을을 둘러보면 아스팔트가 깔린 포장도로나 시멘트 길은 찾아볼 수가 없고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흙길과 습지들이 곳곳에 조성되어 있다. 이것은 자연친화적이고 자연과 어우러져 문화 예술을 하고자 하는 예술인들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부차적인 입지요인으로는 주5일 근무제의 도입에 따라 확대된 여가시간과 파주시의 경기 서북부 복합 문화지역 지정 등의 정책적인 요인을 들 수 있다. 여가시간의 확대로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즐기게 되고 그에 따른 수요가 증가하면서 파주 영어마을이나 프로방스와 같은 인접한 주변관광지와 함께 개발된 것이다. 더불어 자유로 확장으로 인해 주변 일산 신도시와 높은 근접성을 띄게 되면서 관광객 유치에 유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헤이리 예술 마을은 주말 평균 관광객 1만 명 이상, 연간 270만 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파주시의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경기서북부 복합 문화지역 〉

출처: 경기개발연구원

3. 헤이리 예술 마을: 문화공간인가? 관광공간인가?

1) 문제점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과 자연과 어우러지는 예술, 문화장소로 조성된 헤이리 예술 마을이 최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해당사자들 간의 충돌 및 운영상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생활권과 관광권의 대립이다. 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과 관광객들의 간에 보이지 않는 마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자연과 어우러지는 자연친화적인 마을로 구성되어 답이 없는 이곳을 이용하여 관광객들이 함부로 사진을 찍고 개인적인 공간에 침입하는 등의 방해로 예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관광객들도 마땅히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 불만을 표하고 있다.

둘째, 헤이리 예술 마을 내에 입지한 구성원들의 다양성 문제이다. 예술 마을 초기에 입주한 구성원들은 높은 질의 문화·예술을 대표하는 곳으로 발전을 위하여 헤이리 예술 마을이 일반화, 대중화, 관광화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반면 후에 들어온 구성원들은 주로 상점이나 스튜디오 등의 상업적인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축제나 체험 관광 프로그램 활성화 등의 보다 다각적인 방향의 예술을 추구하여 구성원 간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헤이리 예술 마을 내의 수요와 공급의 문제이다. 관광객이 많이 찾아들면서 헤이리 예술마을은 모두에게 흥미로운 관광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 관광객에는 턱없이 비싼 숙박비나 시설이용료 때문에 값비싼 예술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고 있다. 이에 따라 한정된 소비계층으로 인해 운영자들도 이를 활용한 공급의 생산성이 부족하여 운영비용의 부족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헤이리 예술 마을에서는 이해당사자들 간의 충돌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세계적인 문화·예술 마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지 생각해보자.

2) 문제점 해결 방안

앞에서 살펴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있을까, 먼저 헤

이리 예술 마을은 개인이 모여 이루어진 민간업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서로간의 입장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개인 사유지만 신경 쓰고 개인 소유의 건물만 관리하기 때문에 관광객이나 공공을 위한 공영 주차장, 공중 화장실 등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들 개개인의 이익을 조율하고 그 조직의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가령 관광객들에게는 일정의 입장료를 지불하게 하여 그 수익으로 공영 주차장을 만든다거나, 일반관광객의 차량 유입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주거 공간 및 예술 공간을 보호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예술 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해서도 체험프로그램이나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을 만들어 여러 방향으로 관광 상품을 확대시키고,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익을 증대시켜 헤이리 예술 마을 운영에 보탬을 주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 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헤이리 예술 마을은 세계적인 문화·예술 마을이자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탈현대적 관광과 프로방스

1) 프로방스



〈 프로방스마을 〉

출처: <http://blog.naver.com/okplastics>

프로방스는 프랑스 남동부에 있는 문화·역사적인 마을로 휴양지로 유명하다. 그 분위기를 고스란히 옮겨 놓은 듯한 파주의 프로방스는 1996년 프랑스식 레스토랑을 시작으로 유럽풍 디자인의 아기자기한 건물이 들어서면서 연보라, 노랑, 연두 등의 파스텔톤 색상과 어우러진 이국적인 마을이다. 헤이리 예술 마을과 불과 200m 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이곳은 레스토랑, 카페, 베이커리, 리빙관, 패션관, 허브농장 등의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독립된 건물에서 각각의 컨셉으로 운영되지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즉, 레스토랑과 카페에서 사용하는 식기를 디자인하고 제작하기 위한 도자기 공방이 존재하고, 프로방스 마을의 디자인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며 핸드페인팅 도자기를 중심으로 데코레이션 상품을 판매하고 유통하는 리빙관, 손님들에게 파는 베이커리, 플라워, 허브 등 모두 이 마을 안에서 만들어지고 길러진 것이다. 이들은 앞서 말했듯이 각각



〈 헤이리 예술 마을과 프로방스 〉
출처: 파주시청

독립된 개체지만 뛰어난 창의력을 발휘하여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테마형 마을로 구성되어 있는 이곳은 인접한 최근 헤이리 예술 마을과 더불어 사진촬영장소, 관광지, 휴식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2) 최근 관광의 변화양상

구분	현대적 관광	탈현대적 관광
배경	현대성(modernity) 산업사회(industrial society)	탈현대성(post-modernity) 후기산업사회(post-industrial society)
관광 유형	대중관광 (mass tourism)	대안관광(alternative tourism) 포스트 관광(post tourism)
관광 자원	비실재(unreal) 관광자원	실재(real), 초실재(hyperreal) 관광자원
특징	포디즘(fordism) 생산자 중심/관광 상품의 소품종 대량화 단체(mass) 팩키지(packaged) 책임 없는(irresponsible) 행동 수동적 / 위락적	포스트 포디즘(post-fordism) 소비자 중심 / 관광 상품의 다품종 소량화 개인(individual), 신중산계급(new middle class) 비팩키지, 유연적(unpackaged, flexible) 책임 있는(responsible) 행동 능동적 / 교육적·가치 지향적·자기계발
공간적 특징	특별한 볼거리 장소(extraordinary site) 3S(Sun, Sand, Sea): 해안 경승지 관광지의 분화(differentiation) 관광지의 공간적 집중	일상적 볼거리 장소(general interest site) 경제, 문화, 스포츠, 교육활동 장소 관광지의 탈분화(de-differentiation) 관광지의 공간적 확대

출처: 포스트모던 관광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 오정준

3) 탈현대적 관광(post-modern tourism)

탈현대적 관광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구분된다. 그 중의 하나로써, Feifer는 포스트 관광(post-tourism)이라는 새로운 관광 형태를 제시했다. 포스트 관광이란 초실재적 현상이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그러한 관광 경험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면서도,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현상을

통해 즐거움을 발견하는 관광 행위이다. 포스트 관광객은 실재와 모사간의 차이에 대해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는 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재보다는 모방이나 초실재(hyper-reality) 관광 자원을 소비한다는 것이다. 결국 현대적 관광에서는 비실재적(unreal) 관광 자원을 소비하고, 또 다른 탈현대적 관광에서는 실재적(real) 관광 자원을 경험하는 것이 대표적이었지만, 포스트 관광은 초실재적 관광 자원(공간)의 경험을 원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Baudrillard와 Eco에 의해 제기된 포스트모던 초공간(hyperspace), 다시 말해 시뮬라르크(simulacres)²⁾에 대한 경험과 방문을 의미하는 것이다. 초실재 관광공간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디즈니랜드, 셸록홈즈의 집(런던의 베이커가 221번지), 일본의 하우스텐보스 등이 있다. 파주 헤이리의 프로방스는 앞서 언급한 포스트모던 초공간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고, 그러한 공간의 소비와 방문은 넓은 의미의 탈현대적 관광이라고 볼 수 있다.

5. 맺음말

다양한 문화장르가 한 곳에서 소통하는 문화예술마을, 파주 헤이리 예술 마을. 마을 내의 건물들은 하나하나가 예술작품으로, 마을 자체는 작품전시를 위한 갤러리로 만들어져 있다. 자연친화적인 공간에서 자유로운 예술 활동을 하고자 하는 예술인들의 노력으로 이곳은 자연, 문화, 예술의 삼박자를 고루 갖춘 공간으로 거듭났다. 최근 언론보도와 경기 서북부 문화체험관광 지정 등을 통해 주말이면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문화 관광광지로도 주목받고 있다. 딱딱하고 기계적인 삶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문화 예술을 접할 수 있고 휴식을 즐기는데 있어서 더할 나위 없는 공간인 것이다.

이러한 헤이리 예술마을에 최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해당사자들 간의 입장차이가 발생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초기에 입지한 예술인들이 역으로 헤이리 예술마을을 떠나가는 현상이나 서로의 사유지만 돌보아 공공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앞으로 헤이리 예술마을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서로간의 이해를 조정하여 예술인들이 원하는 질 높은 문화 예술 단지, 관광객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관광지로서 세계적인 문화 예술마을로 거듭나도록

2) 시뮬라르크(simulacres)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인공물을 지칭한다 (Baudrillard, 1981).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생각해보기

- 현재 헤이리 예술 마을에서는 자유로운 예술 활동을 하고자 하는 예술인들과 관광을 하고자 하는 일반 관광객들의 입장차이가 발생하면서 양측 간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 양측모두가 win-win 전략을 펼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지 생각해보자.

《 참고문헌 》

- 이지선 / 2005 / 지역축제 관광문화상품에 관한 연구 / 조선대학교 대학원
- 김홍식 / 2007 / 경기 서북부지역 문화체험관광 활성화 방안 / 경기개발연구원
- 크리스 로젝 / 2002 / 포스트모더니즘과 여가 / 일신사
- 오정준 / 2004 / 생태관광지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 대한지리학회지

《 참고사이트 》

- 한국 관광 공사 <http://korean.visitkorea.or.kr>
- 헤이리 예술 마을 <http://www.heyri.net>
- 경기개발연구원 <http://www.gri.re.kr>
- 파주시청 <http://www.paju.go.kr>
- 파주 문화 관광 포털사이트 <http://tour.paju.go.kr>
- 프로방스 마을 <http://www.provence.co.kr>